

임업의 당면과제와 나아갈 길



조 남 조 / 산림청장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일'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경제 100일계획 추진, 신경제 5개년계획의 수립등 경제회생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임업분야에서도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임업창조를 목표로 임정의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임업의 현실과 전망

우리나라 임업의 현실은 한마디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그간 온 국민의 노력으로 국토녹화는 이룩하였으나 산지관리제도의 미비, 임업경영의 어려운 여건, 목재와 산림환경에 대한 수요증가등 해결해 나가야 할 여러가지 과제에 직면해 왔다.

첫째, 산지이용구조를 보면 현행 산지이

용체계는 입목도·경사도에 의한 보전위주의 단순구분으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산지관리업무가 여러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이용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더욱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산지이용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임업경영여건을 보면 녹화위주의 정책추진으로 임업경영지원이 미흡했고 산주의 자율경영이 제한을 받아 자발적인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유구조를 보면 그 영세성으로 규모의 경제에 미달되고 입목자원의 빈약, 임도시설의 부족·낮은 기계화율·과다한 유통비용 등 경영기반이 취약하여 생산성이 매우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임업의 장기성, 저수익성으로 산주가 투

자를 기피하고 있고 노임의 상승, 노동력부족으로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셋째, 산림경영여건이 어려운 반면 맑은 물, 깨끗한 공기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다.

쾌적한 휴양·레저공간으로서 산림이용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산림생태계 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욕구와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편, 리우환경회의 이후 세계적인 환경보전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그리하여 산림보전이 지구환경개선의 핵심과제로 부상되고 있으며, 산림원칙성명, 생물다양성 협약채택 등 국제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넷째, 목재수급동향을 보면 국내 목재수요는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라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목재수요량은 현재 1천만 m³ 수준이나 2030년대에 가면 2천4백만 m³로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임업의 여건상 목재수요의 50% 이상 자급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국제수급동향은 세계 산림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요량은 계속 증가하여 목재부족에 따른 파동이 예견된다. 자원보유국의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수출규제, 환경보전 강화에 따른 벌채량 감소로 목재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내외 목재수급동향에 대처하여 해외 산림개발의 확대와 목재도입선의 다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임정의 기본방향과 과제

신경제 5개년계획과 연관을 가지면서 장·단기적인 안목에서 설정한 새로운 임정

의 기본방향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산지관리와 경영구조의 개선이다. 그리하여 활력있는 임업육성, 살기 좋고 아름다운 국토경관 조성에 목표를 두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임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환경자원 증식으로 국민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중점 추진시책

첫째, 산지관리제도의 확립이다.

산지이용구분 체계의 재편은 전국의 산림 약 650만ha를 기능과 이용목적에 따라 현행 보전, 준보전임지를 생산·공익·산업임지로 다시 구분하려 하고 있다.

생산임지는 임산물생산 중심으로 경영해 나가고

공익임지는 국토보전과 환경자원의 증식·관리에 주안점을 두며,

산업임지는 산업용지의 공급과 산림경영을 병행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재편일정은 금년말까지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94년에 임지구분조사 및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지이용체계 재편과 병행하여 산지관리의 일원화를 위한 관련법률도 조정하고자 한다. 실수요자 임야매매의 자율화와 산지투기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며,

개발제한행위의 최소화, 산지전용절차의 간소화 등 산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산지를 그 이용실태에 부합하도록 재정비 해 나가려는 것이다.

둘째, 경제임업의 촉진이다.

이를 위한 기본방향은 임업경영구조개선으로 경쟁력있는 임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산지이용구분 재편

- 생산임지 : 임산물생산 중심
- 공익임지 : 국토보존·환경
 자원의 증식관리
- 산업임지 : 산업용지의 공급과
 산림경영 병행

생산임지에 대해서는 보속생산이 가능하도록 전용을 엄격히 제한하며 계획적인 산림경영이 되도록 집중투자해야 한다.

독립가·임업후계자를 전업임가로 육성하여 임업경영주체의 자율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하고, 임도·기계화등 경영기반확충이 시급한 과제이다.

목재산업의 육성과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노후시설 대체, 자동화를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대경제·소경제·폐잔재의 용도개발도 촉진해야 할 분야이다.

아울러 목재집산지에 대규모 집하장을 설치하여 생산·집하·판매의 일관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전국적 정보망 구축으로 목재의 원활한 수요·공급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UR에 대비해서는 단기소득임산물개발을 촉진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융자·기술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환경임업의 육성이다.

환경임업육성의 기본방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산림자원의 증식, 공익기능 증진

을 통한 국민생활 환경개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강화, 환경오염과 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수원림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생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 공간과 공단주변에 환경림을 조성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는 산림파괴요인을 제거하여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산지전용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자 한다.

국제환경대책으로는 리우회의 합의내용을 산림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산림 의정서 제정협상등 국제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적정수준의 재정부담으로 국제적 임지를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산불, 산림병해충, 산림황폐지등 3대 산림재해 극복에도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

넷째, 해외산림개발 확대이다.

단기대책으로는 동남아 위주에서 대양주·러시아 등지로 목재도입선을 다변화하고, 현지 가공공장진출 확대, 미이용수종의 용도개발로 도입형태를 다양화해 나가면서 목재자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임지여건과 조림여건이 유리한 지역에 개발임지를 확보하는 일이다.

다섯째, 기술개발의 촉진이다.

새로운 임정구현을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임업기술의 현장보급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수종을 위한 기초과 학연구 활성화, 고품질 임산물개발등 실용화 연구에 주력하면서,

『임업기술보급센터』를 설치하여 신 기술의 보급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여섯째, 전략시범사업의 추진이다.

다목적 산림경영과 임업기계화 시범사업을 통하여 임업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산림경영자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고취해야한다. 산주들의 자율적 산림경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범사업을 실시해 나가고자 한다.

사유림경영 시범단지조성 사업으로

목재생산, 단기산림소득개발, 휴양림조성 등 농업과 연계한 복합 산림경영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국유림경영시범단지 육성사업은

목재·부산물생산등 체계적인 산림경영으로 사유림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천ha 내외의 국유림 1개소를 선정, 산

림경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통구조개선 모델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목재생산이 가능한 소비처 중심지역에 시범 목재집하장을 설치하여 이를 거점으로 임업기계를 집중지원, 생산·집하·판매의 일관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집하장중에서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산림경영을 병행한 휴양림조성 사업은

계획적인 산림경영을 하면서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도시 주변 국유림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산림종합전시관 운영사업은 국산재의 수요촉진과 이용극대화를 위하여 임산물을 가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목제품을 전시할 전시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끝으로 임정추진시책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산림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을 정비해 나갈 것이다.

쓰레기를



줄임시다

마음만 먹으면 해내고야 마는
위대한 우리 민족,
쌈쌈이도, 쓰레기도 우선은 10%씩
줄여 봅시다.